



보도 일시	2022. 5. 18.(수) 15:30	배포 일시	2022. 5. 18.(수) 15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장 박재진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황인환 (inhwan89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 개최

- 추경호 부총리는 '22.5.18(수) 14:00에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'중기중앙회')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(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)를 개최하였음
 -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,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 -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

< 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5.18.(수) 14:00~15:20,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
- ▶ (참석자) ①정부 : 부총리, 기재부 정책조정국장,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
 ②중소기업계 :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(6명), 중기중앙회 부회장단(6명), 중기중앙회 이사 등(5명)

-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,
 -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-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, 무역금융지원 확대,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,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, 가업승계제도 개선, 벤처·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음
-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인과의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다음 정책과제들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
-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, 물류·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음

-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, 물류·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
- 다음으로,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·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음
 -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·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,
 - 불공정거래,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 언급하였음
- 또한,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중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,
 - 조정협의제도 개편,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
- 이와 함께,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,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
- 마지막으로, 디지털 전환, 친환경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,
 - 특히, 중소기업이 경제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R&D, 디지털 인력 양성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
-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,
 - 민간·시장 주도의 성장을 주된 전략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,
 -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준다면, 중소기업도 활발한 기업 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,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음
-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례 간담회 등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,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조언과 동참을 요청하였음